

애플의 iCloud+ 성능에 의한 버저닝

2020251009 김혜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더 이상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사진을 찍고, 보관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양이 폭증하게 되며 저장해야 될 데이터 양이 급증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할 필요성이 생겼다.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는 용량이 한정돼 있고 확장성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기기에서 데이터를 쉽게 동기화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줄여준다. 스마트폰을 단지 연락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진을 많이 찍지 않고 많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큰 저장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은 앱을 사용해 저장용량이 부족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진을 추억용으로 지우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싶은 이용자들이나 포토그래퍼,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에게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필수인 셈이다.

iCloud +

애플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iCloud+로 제공하고 있다. iCloud+는 사진, 파일 및 백업 등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최신으로 유지되며 사용자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 친구 및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더해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인 iCloud 비공개 릴레이, 필요할 때마다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이메일 가리기,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HomeKit 보안 비디오 녹화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비롯한 프리미엄 기능 및 저장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iCloud+는 총 저장용량에 따라 월 구독 형식인 50GB 1,100원, 200GB 3,300원, 2TB 11,100원, 6TB 44,000원, 12TB 88,000원으로 5가지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버저닝 전략의 적절성

애플의 iCloud + 서비스는 성능에 의한 버저닝을 채택하고 있다. 구글 드라이브, 원드 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업에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스토리지 특성상 호환성이 가장 중시되는데, iCloud의 경우 iOS, macOS, watchOS 등 애플기기와 통합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iCloud를 사용하는 것이 호환성면에서 타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편리한 선택지이다. 하지만 만약, 애플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버저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하는 다른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이용자가 생기고, 애플의 차별화 요소인 디자인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편리성과 호환성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타사 제품으로 이용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애플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버저닝과 호환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적절히 대응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iCloud+의 경우 타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동일하게 클라우드 용량을 계정내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애플 제품 특성상 비즈니스 사용자보다는 개인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 젊은 층이 사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실제 가족들 중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은 소수일 것이라는 점과 공유 구매의 단점인 주최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유했을 때 오는 불편함을 고려했을 때,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1인만 사용할 수 있되, 200MB와 2TB 사이에 용량 선택지를 늘리고(500MB, 1TB 등) 대신 가격을 낮추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애플은 최대 5명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2TB의 클라우드 용량을 공유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만 사용 가능한 1TB의 버전을 출시하고 가격은 2TB의 절반인 5,500원이라면 5명이 해당 플랜을 선택했을 때 16,500원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라도 공용 클라우드를 5명이 사용했을 때 인당 약 400MB의 저장 용량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3,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600MB를 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유를 하지 않고 사용하던 개인 이용자나, 공유를 하던 이용자 모두에게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를 더 충족시키며, 더 합리적인 가격 전략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된다.